

#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도에 주는 영향

신승옥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ffecting Factors of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Seung-Ok Shi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상담 및 지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일부 지역의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학과 4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및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진로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만족도는 13.3% ( $\beta=.248$ ), 자기효능감은 38.6% ( $\beta=.570$ )가 예측요인이었고 총 44%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주제어 : 진로, 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counseling and guidance for nursing. There are 121 nursing students 4th grade students who accomplished all clinical practices cited one specific locati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n by the study were shown to be positively correl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3.3% ( $\beta=.248$ ) and self-efficacy 38.6% ( $\beta=.570$ ), respectively. A total of 44% were the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urriculum to enhance the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n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 Effica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시기는 졸업 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이다[1]. 대학 생활 동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2]. 현재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 대학생 동안 진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진로 선택의 문제는 개인의 적성보다는 현실적 문제의 대안으로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3,4]. 또한 학과를 포함한 진로의 선택은 우리나라의 공동체 문화적인 특성상 가족 또는 주위의 권유가 영향을 주고 있다[5].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되기

\*Corresponding Author : Seung-Ok Shin(rnokkk@daum.net)

Received October 11,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12,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위해 입학하여 간호학 교육과정을 이수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입학과 동시에 졸업 후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 특수성이 있다[6]. 현재 간호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대학 졸업 후 병원의 취업률은 높지만 지역에 따른 다양한 병원의 선택은 간호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및 간호학과에서는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생을 담당하는 지도교수가 학생의 진로문제 및 결정에 대한 문의가 오면 진로에 대한 취업지도 및 상담을 하고 있다[7]. 하지만 단편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으로는 간호학과의 전공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과정 없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취업 후 산업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8]. 따라서 진로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갖추기 위한 요인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진로태도성숙도는 직업발달의 과정으로 진로의 성숙에서 출발한다[9]. Lee & Han[10]은 진로태도성숙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에게 귀인시키는 임무라고 하였다. 이는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본인이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책임감이다. 진로성숙도는 진로선택과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Crites[11]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타협성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다. 개인의 신념은 개인의 진로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서 진로결정을 위해 과업을 완수하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12]. 특히 개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과선택, 직업선택,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13,14].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의 선택을 잘하기 위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요인이 되므로 학업성취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된다[15].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관련이 있다[7]. 진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미래의 직업과 일치한다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16].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졸업 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의 교육과정

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상실습 교육과정은 필수과정으로서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임상실습은 3학년에서 시작되어 4학년에 학점이수가 완료된다. 임상실습은 임상환경에서 대상자의 상태와 반응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실습과정이다. 이는 졸업 후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취업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특히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습이 만족하지 못하면 졸업 후의 진로영역을 임상영역에서 배제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17]. 임상실습이 4학년에 끝나므로 임상실습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기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학년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도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실습을 모두 이수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는 개인적 특성이 반영되므로 개인적 신념인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진로지도 및 상담을 하는 방안의 자료로서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1)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진로태도성숙도 정도를 확인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진로태도성숙도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진로태도성숙도와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진로태도성숙도에 영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개 지역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중 임상실습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참여한 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95% 경우 필요한 표본수는 119명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표본의 크기가 충족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진로태도성숙도

진로태도성숙도 척도는 Crites[11]가 개발한 Career Maturity Inventory(CMI)를 Lee & Han[10]이 수정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CMI)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영역으로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및 독립성등의 영역되어있으며 총 4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으면 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 Han[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4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 =.92이었다.

### 2.3.2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자기효능감 척도는 Sherer, Maddux 및 Jacobs와 Rogers[18]등이 개발한 척도를 Hong[1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서 17문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과 6문항인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 Efficacy)'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있다. 긍정적인 10문항과 부정적인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여 산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이었다.

### 2.3.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의 경우에는 단일문항 항목으로서 5점 Likert식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하였다.

### 2.3.4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설문지조사 전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이외에는 설문응답 내용이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개인의 정보는 비밀로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121부를 수거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자료는 분석 후 폐기할 예정이다.

##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만족도, 자기표현정도, 전공만족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24.8세이며 전체 대상자 중 여학생은 109명(90.1%)으로 남학생 12명(9.9%)보다 더 많았다. 자기표현 정도는 '보통이다'가 71명(58.7%), '잘 표현한다'는 46명(38.0%), '표현하지 못한다'는 5명(3.3%) 순이었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70명(57.9%), '보통이다'는 51명(42.1%)이었다.

### 3.2 전공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태도성숙도의 전체평균은 Table 2와 같이 3.74±0.32점이며, 하위영역으로 결정성 3.68±0.49점이었고, 목적성 3.80±0.36점, 확신성 3.70±0.39점, 준비성은 3.78±0.42점, 독립성은 3.78±0.45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3.44±0.43점, 임상실습만족도는 3.76±0.73점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
Age(year)		24.8±0.68	
Gender	Male	12	9.9
	Female	109	90.1
Self assertiveness	Satisfied	46	38.0
	Moderate	71	58.7
	Unsatisfied	4	3.3
interpersonal satisfaction	Satisfied	70	57.9
	Moderate	51	42.1
	Unsatisfied	0	0.0

Table 2. Mean scor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21)

Variables	M±SD	Min	Mex
Career attitude maturity	3.74±0.32	3.00	4.68
decisiveness	3.68±0.49	2.90	5.00
goal-orientation	3.80±0.36	3.00	5.00
confidence	3.70±0.39	3.00	5.00
preparation	3.78±0.42	3.00	4.80
Independence	3.78±0.45	3.00	5.00
Self-Efficacy	3.44±0.43	2.04	4.67
Clinical Satisfaction	3.76±0.73	3.00	5.00

3.3 전공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진로태도성숙도와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625, p<.001$ )을 보였고, 진로태도성숙도와 실습만족도는 ( $r=.374, p<.001$ )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222, p=.007$ )

Table 3. Correlation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21)

Variables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1		
Self-Efficacy	.625(.001)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74(.001)	.222(.007)	1

3.4 전공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요인

전공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범위가 0.951로 0.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은 1.052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2.312으로 오차항간에 상관성이 없었으며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F=48.116, p<.001$ ). 다중회귀분석 결과 진로태도성숙도에 임상실습만족도가 13.3%( $\beta=.248$ ), 자기효능감은 38.6%( $\beta=.570$ )로 진로태도성숙도에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이들 변수는 진로태도성숙도에 총 44.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4. Predictor for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 (n=121)

variable	B	$\beta$	t	p	Adj R2
constant	1.772		8.577	.001	
Self-Efficacy	.417	.570	8.137	.001	.386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38	.248	3.533	.001	.133
R2=0.449, Adj R2=0.440, F=48.116, p<0.001					

4. 논의

본 연구는 진로태도성숙도와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진로태도성숙도에 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3.44점으로 Park et al[20] 3.33점 및 Kim[21]의 3.42점과 유사하였지만 Kim et al[22]의 3.84점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4학년을 대상으로한 Kim & Park [23]의 연구와, Kim[21]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낮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지만 3,4학년의 경우 임상실습교육을 경험하게 됨으로서 이로인한 피로감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임상실습만족도 결과 평균 3.76점으로 Ham et al[24] 3.88점의 연구보다는 낮았다. Ham et al[24]의 연구는 임

상실습을 모두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연구도구가 동일하지 않아 비교가 어려운점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m et al[24]연구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임상실습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임상실습환경이 환자의 안전의 문제로 관찰위주의 실습이 진행되다보니 직접적인 간호의 영역을 실습할 수 없어 실습의 불만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임상실습불만족 요인을 추적하여 임상실습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진로태도성숙도 결과 평균 3.7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 Jeong[25] 연구의 3.38점, Koo & Park[26]의 3.50점 보다 높았다. 각 연구들은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학년 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성숙태도 점수가 약간 높았다. 미용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et al[27]의 연구에서도 졸업학년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진로의 선택과 취업의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27].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소들의 평균 점수에서는 목적성이 가장 높았고 독립성,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 순이었다. 목적성은 개인이 직업을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서 2,3,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28] 연구에서는 목적성이 가장 낮아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 & Shin[29]의 연구에서는 준비성이 가장 높았고 결정성이 낮았다. 본 연구 대상이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차이가 있었다. 4학년은 졸업 후 직업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얻기 위한 시기로 목표지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아질 수 있다.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에 대한 확실한 정도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게 나왔다.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으나 직업에 대한 결정성이 확고하지 않는 것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 목표가 있지만 직업에 대한 결정이 확고하지 않는 것으로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학과에서는 자신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선택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진로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한 진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꾸준한 상담과 지도가 필요하다.

진로태도성숙도는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

족도가 높으면 진로성숙태도와 관련이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쳐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30,31].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태도의 성숙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Lee & Jeong[25] 및 Han[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에서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임상실습을 만족하는 학생의 경우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성숙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임상실습으로 인해 간호전문직에 대한 직업관을 생각하게 되고 이는 진로태도성숙에 관련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38.6%, 임상실습만족도가 13.6% 순으로 설명력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Lee & Jeong[25], Han[7], Ko & Kim[33] 연구에서도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은 입학시부터 진로가 결정되는 특수성이 있다. 특히 3,4학년에서는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을 받게 된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개인의 임상실습경험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의 성취동기가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입학시부터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개인 심리적 변수와 관련이 있어 개인적 특성 및 성향에 따른 지도 및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변수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으로 임상실습만족도를 이은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및 간호학과에서는 개인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3,4학년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교육과정편성 및 지도가 필요하다. 진로태도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변수를 비롯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REFERENCES

- [1] Y. I. Park et al. (2013). An identification study on core nursing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663-674.  
DOI : 10.5977/jkasne.2013.19.4.663
- [2] M. J. Kim & B. W. Kim. (2007).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0(1), 13-25.  
DOI : 10.23844/kjcp.2017.05.29.2.383
- [3] J. W. Park & N. S. Ha. (2003).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The Journal of Korean Acad Psych Ment Health Nurs*, 12(1), 27-35.
- [4] S. H. Kang. (2010-b).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to the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3), 291-307.
- [5] S. H. Le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parent-related career support. *Korea Journal of Counselling*, 13(3), 1461-1479.
- [6] K. S. Bang & J. K. Cho. (2008).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88-97.  
DOI : 10.5977/JKASNE.2008.14.1.088
- [7]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5), 559-566.  
DOI : 10.7475/kjan.2013.25.5.559
- [8] K. A. Lee & J. H. Kim. (2015).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2(2), 42-49.  
DOI : 10.16952/pns.2015.12.1.42
- [9] S. Y. Lee. (2016). *The Effects of Career Values and Call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Master's degre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10] K. H. Lee & J. C. Han. (1997). Tools for validating career attitude instrument to measur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8, 219-255
- [11] J. O. Crites. (1978). Manual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s. *Monterey, California: CTB/McGraw-Hill*
- [12] T. S. Kim & K. H. Lee.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4), 123-141
- [13] L. T. Esters & M. S. Retallick. (2013). Effect of an Experimental and Work-Based Learning Program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Research*, 38(1), 69-83.  
DOI : 10.5328/cter38.1.69
- [14] J. H. Youn. (2015).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employability of college students. *J Employ Career*, 5(2), 29-46.
- [15] S. H. Kim & J. S. Hahn. (2007). *Relations among learner's personality types, self-direction, attitudes and self-efficacy toward technology,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6] H. Y. Jeong & Park, O. L. (2009).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ense of value,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level of beauty care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Beauty and Art*, 10(1), 35-49.
- [17] S. Y. Mun & N. Y. Yang.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 Learning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4), 473-480.
- [18] M. Sherer, J. E. Maddux, B. Mer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 R. W.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DOI :10.2466/pr0.1982.51.2.663
- [19] H. Y. Hong.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1995), Master's degree, Ewha University. Seoul.
- [20] H. S. Park, J. M. Yun, S. N. Lee, S. R. Lee & M. S. Lee.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3(1), 35-45.
- [21] Kim, M. O. (2016).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609-617.  
DOI : 10.5762/KAIS.2016.17.6.609
- [22] J. S. Kim, S. J. Han, S. W. Han & S. H. Kim. (2014). The effects of nursing introduction conten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of first year students. *J Korean Inst Elec Commun Sci*, 9(3), 285-296.

- DOI : 10.13067/JKIECS.2014.9.3.285
- [23] S. M. Kim, & S. Y. Park. (2014). The effects of attribution disposition,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Data Anal Soc*, 16(6), 3409-3421.
- [24]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7(3), 538-546.  
DOI : 10.5977/JKASNE.2011.17.3.536
- [25] K. G. Lee & G. S. Jeong. (2017).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5(3), 91-99.  
DOI : /10.15268/ksim.2017.5.3.091
- [26] H. Y. Koo & H. S. Park. (2005).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2), 373-385.
- [27] Y. J. Choi, I. H. Lee & Y. J. Kim. (2014).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on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2), 7068-7076.  
DOI : 10.5762/KAIS.2014.15.12.7068
- [28] M. A. Kim, J. Y. Lim, S. Y. Kim, E. J Kim., J. E. Lee & Y. K. Ko. (2004).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3(4), 383-391.
- [29] I. S. Park & E. K. Shin. (2016).The influence of career identity on their stress coping styl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10(4), 41-53.  
DOI : 0.18014/hsmr.2016.10.4.41
- [30] S. O. Kim & S. M. Kim. (2015). Effect of attribution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3), 452-462.  
DOI : 10.5932/JKPHN.2015.29.3.452
- [31] E. J. Shin, (2008). Satisfaction of practice and clinical skill in participation learning and observation learning.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19(2), 195-207.
- [32] H. J. Kwon et al (2009). A study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the colle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wha Nursing*, 43, 41-50.
- [33] B. S. Ko & Y. H. Kim. (2011). The effects of academic

self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4(2), 29-42.

신 승 옥(Shin, Seung, Ok)

[정회원]



- 2014년 8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6년 9월~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근거중심간호, 건강증진
- E-Mail : mokkk@daum.net